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54>
(修習止觀坐禪法要)

제6장 정수행(正修行) ⑩ <끝>

제법실상 알아야 삼제원용 분명해져

復次 若能如是一切處中修行大乘 是人則於世間最勝最上無與等者 釋論中說
閑坐林樹間 寂然滅諸惡 澹泊得一心 斯樂非天樂 人求世間利 名衣好床褥 斯樂非安穩 求利無厭足 衲衣在空閑 動止心常一 自以智慧明 觀諸法實相 種種諸法中 皆以等觀入 解慧心寂然 三界無倫匹

어떤 사람이 일체 처소에서 이와 같이 대승 정수행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간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으뜸이어서 그와 겨룰 자가 없다.

여기에서는 '대지도론'을 인용해서 이 문제에 대해 밝히고 있다.

숲속에 한가히 앉아
고요한 마음으로 모든 악을 소멸하네
담박하게 증득한 일심
이 즐거움은 천상의 즐거움이 아니라네
사람들은 세간의 이익과
좋은 옷과 좋은 침상을 추구하나
이 즐거움은 안온이 아니라
이익을 구하는데 만족이 없기 때문이네
누더기 옷으로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있으면서
행동거지를 따라 마음이 항상 한결 같다네
스스로 지혜의 마음으로
제법실상의 이치를 관조하네
갖가지 제법을
모두 평등한 마음으로 관찰하고 깨달아
지혜의 마음이 고요하여
삼계에는 그를 짝할 이 없네

'부처(復次)부터 무어등자(無與等者)까지의 문장은 지관법문을 지닌 사람은 그 공덕이 불가사의 하다는 것을 찬미하고 있다. 그 사람은 여러 가업의 집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자비와 지혜의 두 가지 범으로서 중생들을 포섭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간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상하여 그를 세간 사람들은 같은 수준에서 평등하게 짝할 수가 없다.

'숲속에 한가히 앉아' 부터 네 구절은 속제 기관에서 진제 공관으로 깨달아 들어가는 모든 선 공덕이 뛰어남을 밝히고 있다.

'한가히 앉아 있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편안히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심란하게 시끄러운 것을 멀리 여의었다는 뜻이다. '숲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을 멀리 여의고 세상 사람과 서로 왕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고요한 마음으로 모든 악을 소멸하네' 라는 구절은 모든 선 공덕을 일으키고 일체 번뇌와 서로 호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담박하게 증득한 일심' 은 마음이 한결같이 담연하다는 뜻이다.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흉내 내기 좋아하는 원숭이와 같고 의식은 날뛰는 말과 같아서 동분서주하며 하루 종일 번뇌와 함께 한다. 그런데 어떻게 담박한 일심이 라고 할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단정히 앉아서 제법실상의 이치를 생각해야만 이와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몸과 손발이 편안하여 요동하지 않으며

마음까지도 항상 담박하여 산란심이 없어만 이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즐거움은 천상의 즐거움이 아니라네' 라는 것은 세간의 쾌락은 출세간의 쾌락과 비교되지 않는 것이 부처와 중생처럼 천양지차인 것을 말한다.

세간의 즐거움은 유류법이다. 이는 유위법으로서 생멸이기 때문에 즐거움이 끝내 무너진다. 하지만 출세간의 즐거움은 무류법이고 무위법이다. 무위는 불생불멸하여 끝내 파괴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즐거움은 유위법인 천상의 즐거움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행은 무상이며 생멸법이라는 점이다. 생멸이 소멸하고 나면 적멸의 즐거움이 있는데, 적멸의 즐거움은 인간계상이나 천상의 생멸의 즐거움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속제 가업

으로부터 진제 공관으로 깨달아 들어가는 이치에 대해 밝힌 것이다.

'사람들은 세간의 이익과' 구절부터 네 구절은 범부들이 여러적이고 우치하여 진실을 미혹하고 도적을 자기 자식으로 잘못 인식하듯 허망을 실재로 여기는 것에 대해 밝혔다.

미혹하기 때문에 세간의 욕구를 떠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탐구하면서 생각생각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 또 출세의 길로 달리면서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상업을 하면서 재리를 도모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세간의 오욕 욕진경계 속에서 갖가지 계교를 부리면서 탐구하는 마음에 싫증을 내지 않는다. 그들은 인생의 쾌락을 끝까지 다 맛보는 것으로써 목적을 삼기 때문에 쾌락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따라서 세간의 쾌락은 안전한 법이 아니다.

'누더기 옷으로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있으면서' 라는 구절부터 네 구절은 생사를 벗어날 길이 있고 열반에 오르는 문이 있어 고통의 불에 타지도 않고 영원히 안온하다는 것에 대해 말하였다.

'누더기 옷' 은 출가한 사람을 가리킨다. 즉 발심하고 출가하여 거친 옷을 입고 담백한 음식을 먹으며 바위굴이나 수풀아래 머물면서 종일토록 부처님만 생각하면서 도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거지를 따라 마음이 항상 변함이 없는 것은 지 수행에 속하고, 지 수행을 통해서 지혜의 총명으로서 제법실상을 관찰하는 것은 관수행에 해당된다.

제법은 의보와 정보를 말한다. 반야의 지혜를 일으켜 일체 의보와 정보인 제법을 관찰해 보면 법마다 실상이다. 실상은 차별상이 없다. 그 이유는 세간의 일체제법은 모두 인연을 따

라서 일어나 자체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범부가 집착한 유의 모습도 없고, 이승이 막혀있는 공의 모습도 없으며, 보살의 주관과 객관을 나누는 두 모습도 없고, 진제 속제를 떠난 중도의 모습도 없어 차별상이 없는데서 나타난 모습이 바로 실상이다.

'실상에는 따로의 모습이 없다'는 것은 진제인 공의 의미이고 '실상은 차별상으로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속제인 가의 의미이며 '실상은 상이 없으나 상으로 나타나지 않음도 없다'는 것은 중도의 의미이다.

따라서 갖가지 모든 법 가운데서 평등한 마음으로 관찰하여 공관을 수행할 경우 한 법이 공하면 일체법이 공하여 가 가운데서 동시에 다 가어서 공 가운데 가가 동시적이며, 중을 뒤을 경우 하나의 중이면 일체가 중이어서 공과 가가 중도와 함께 한다.

중도 밖에 따로의 공과 가가 없고 공과 가 외에 중도가 따로 없다. 이 셋 가운데 하나를 들으면 동시에 공가중 삼제를 갖추고 공가중 삼제를 따로 말한다 해도 하나의 이치여서 셋과 하나가 두 모습이 아니다. 그 때문에 이를 두고 '제법을 평등하게 관찰함'이라고 하며, 또 '공가중 삼제를 원만하게 관찰함'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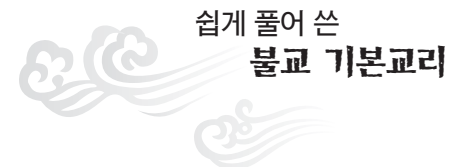
'지혜의 마음이 고요하여 삼계에는 그를 짝할 이 없다네' 라는 이 구절은 지관을 수행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논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밝혔다.

여기에서 '지혜'는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이해한 지혜이다. 이 지혜로 세간을 분명하게 관조하여 갖가지 제법을 낱말이 다 평등관으로써 관찰하여 낱말의 제법이 즉공 즉가 즉중 아님이 없음을 명료하게 통달하는 것이다.

지혜로 관조하고 나면 일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마음이 담연하고 적정하여 일체 경계를 따라서 요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행자가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삼계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와 짝할 수는 없다고 말하였다.

중양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중도 밖에 따로의 공과 가 없고 공과 가를 떠난 중도 따로 없어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근본사상 총설

사제(四諦)와 십이인연(十二因緣)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이론이 성립된 근거를 알려면 불교의 근본사상이 우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신 이후 중생들에게 설법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목전의 일상적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진 이론은 중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 '중아함경(中阿含經)' 권60에 수록된 '전유경(轉輪經)'을 살펴보면 부처님이 결론을 쉽사리 내리지 못한 세계의 유한성과 무한성, 사람이 죽은 뒤의 영혼문제 등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무엇 때문에 이 같은 입장을 보이셨을까요.

부처님이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연민으로 바라보셨다면 당연히 이고득락 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방법을 추구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당면문제인 현실의 고통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우선 명료하게 밝히고, 그 고통은 어떤 방법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처방전을 제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처님 설법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사제의 이론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우주간의 일체 사물의 형성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무런 실마리 없이 출현해 찾아오지 않듯 삶과 죽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그 다음으로 십이인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출고 배고픔에서 오는 괴로움만이 아닌 것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즐거움의 의미는 단순히 세간의 물욕에 의한 관능적인 쾌락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가령 물욕만을 누리는 관능적인 즐거움이 진정한 쾌락이라면 세간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현실 그 자체가 극락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진실하게 도를 밝힌 사람은 실상의 이치를 간파하고 그 실상인 모든 인연법을 깨달아 그 어떤 괴로움이 부딪쳐 온다 해도 태연자약하여 마음이 사물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사를 초탈하여 우주의 변화와 하나의 자체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즐거움인 열반의 세계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실의 고통을 모두 초월하여 절대자 재한 열반의 경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삼법인(三法印)을 설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사제와 십이인연론과 삼법인은 불교의 산대강령입니다. 이는 부처님이 직접 스스로 깨달은 경지이며 일생동안의 설법이 이 세가지로 근본의치로 하여 전태만상의 일대 장광설(長廣說)이 부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화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근본사상입니다.

정리=張如舟

불자 정보 | 698호

현대불교 buddhanews.com

사찰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산 동구 초량동 ● 대지: 230평 ● 법당: 원전 목조로 22평 ● 요사채: 1층 35평, 2층 35평 ● 고급주택, 수목이 우거짐 ● 양도 및 전세 010-4741-3446	사찰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남 진주시내 ●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5분거리 ● 대지: 33평, 건물 2동 도로인접 ● 전망: 좋음, 집기일체 야도 ● 가액: 7천만원 055)744-4879 010-8223-4879
---	--

포교당(급)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산시 수영구 광안 3동 ● 급한사정에 최저가로 인계 ● 시설: 설비 완비 ● 전세금, 비품비 포함 ● 1천 5백만원 051)752-5856	사찰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산 금정구 두구동 근교 ● 대지: 680제곱미터(약 210평) ● 법당: 30평 ● 요사채: 30평(4요사채 20평) ● 시설: 완비, 연못, 고급나무, 야생화 등 정원최고, 교통최고 ● 매매가는 답사후 결정 055)744-4879 010-8223-4879
--	--

사찰(급)안내 계약후 불사하며, 분할도 가능

- 위치: 경북 고령 국도변 대구에서 30여분
- 대지: 약 800평 건평 약 80평
- 법당: 25평, 삼존불, 방 7개, 대형주차장 약 400평
- 노인요양원 및 영육 사리불 안치 준비중
- 양도가: 용자 9700만원 안고 2억 5천만원 인수
- 총액 4억 5천만원 중 진정하게 운영하실 분에게 1억 잔조 보시함

053)471-3123 / 017-501-2315

명소 - 명산 - 명지 사찰 및 템플수련원 부지 매각

- 위치: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산 후면
- 면적: 144,154㎡ (43,606평 - 관리 12,000평)
- 매가: 실 수요자와 직접상담
- 참고: 동서고속도로 - 2009년 개통
- 목적용도 및 토지투자까지 최적
- 위치-입지: 100대명산 팔봉산후면 접합, 동 - 남향
- 홍천강인접 - 홍천대령로도 5분거리
- 동서고속도로 - 남춘천 IC - 7분거리

▼ 전망 및 이미지 조감도

대표전화 **033)435-8060 / 011-377-3410**
주인직접 - 중개업소사절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헌 불전함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사원불교 특 043-647-2378, 011-467-1472

탈종공고

- 사찰명: 약사암
- 법 명: 도산(박영두)
- 주 소: 경남 김해시 장유면 울하리 1116번지
- 사찰명: 용문사
- 법 명: 도오(이병오)
- 주 소: 경남 사천시 선구동 81-32번지

상기 사찰 및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법하